

순환모델의 곡선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urvilinearity of Circumplex Model

부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金秀娟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金得星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

Lecturer : Soo-yun Kim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Deuk-sung Kim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순환모델의 곡선성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urvilinearity of "Circumplex Model" using by reconstructed FACES. In Cohesion, 「connected」 group functioned more effectively than 「disengaged」 and 「enmeshed」 group. In Adaptability, 「flexible」 group functioned more effectively than 「rigid」 and 「chaotic」 group. In "Circumplex Model", the family function of 「balanced」 family was higher than those of 「extremed」 groups.

I. 문제의 제기

가족체계 이론에서 기본적인 전제 중의 하나가 체계의 하위 요소들간에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체계의 전체성과 항상성(homeostasis)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

발된 대부분의 가족사정 모델은 이러한 체계론적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가족과정(family proces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lson, Sprenkle 및 Russell(1979)은 가족기능에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응집성과 적응성을 설정하고, 두 개념을 주축으로 순환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개

* 본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님들은 가족의 역동성과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어 국내 연구에서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김명자, 1992; 김진희, 1988; 김수연·김득성, 1994; 민하영, 1992; 안양희, 1988; 최규련, 1994). 또한 순환모델을 이용한 연구들이 가족학, 아동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발표되고 있고, 순환모델에 관련된 논문이 국내외 삼백여 편에 달한다는 사실에서도 이 모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순환모델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비판 중의 하나가 순환모델의 곡선성 입증의 실패이다. 과다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적절한 응집성과 적응성을 지닌 가족이 건강한 기능을 보인다는 가설은 지지받지 못하였다. 또한 그 원인이 자기보고식 척도인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평가 척도(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 이하 FACES로 칭함)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수연·김득성, 1994; 최규련, 1994; 최연실, 1996; Green, Kolevzon & Vosler, 1985; Walker, McLaughlin & Greene, 1988).

Olson은 측정 방법상의 문제를 극복한다면 곡선성은 밝혀질 수 있다는 입장에 새로운 척도 개발에 관심을 쏟아왔다. 그것은 외부 관찰자 척도를 통한 임상 연구 결과가 곡선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Tiesel(1994)은 응집성과 적응성의 양 극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FACESIV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극단 수준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양 극단이 하나의 차원인지를 밝힐 수 없어 곡선성 검증은 유보한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김수연·김득성(1997)의 FACES II, III, IV를 재구성하는 척도 개발 연구에서 곡선성 검증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즉 응집성과 적응성은 각각 적절한 수준을 매개로 양 극단 수준이 연결되어 고려 모양을 하고 있는 단일 차원이며, 재구성된 척도는 양 극단 수준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순환모델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부자 관점을 통해 순환모델의 곡선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은 모델의 유용성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과다한 극단 수준을 측

정하지 못하는 척도의 결함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이 곡선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측정상의 문제를 해결한 척도가 개발되었을 때 곡선성은 검증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목적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집성과 적응성이 과다하거나 모자라지 않은 적절한 수준일 때 가족기능이 원활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균형을 이룬 가족이 중간범위 가족이나 극단가족보다 가족기능이 원활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정상가족은 문제가족보다 균형을 이룬 가족의 비율이 극단가족 비율보다 더 높은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의 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응집성 및 적응성의 수준이 과다하거나 모자라지 않을 때 가족기능이 원활한가?

가설 1-1. 응집성이 적절한 수준(연결)일 때 가족기능(가족화목, 의사소통)은 원활할 것이다.

가설 1-2. 적응성이 적절한 수준(유통)일 때 가족기능(가족화목, 의사소통)은 원활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순환모델의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가족기능은 어떠한가?

가설 2. 균형을 이룬 가족이 중간범위 가족이나 극단 가족보다 가족기능(가족화목, 의사소통)이 원활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정상가족과 문제가족은 가족체계 유형의 비율에서 차이가 있는가?

가설 3. 정상가족은 문제가족보다 균형을 이룬 가족에 해당되는 비율이 높을 것이고 문제가족은 극단 가족에 해당될 비율이 높을 것이다.

II. 순환모델의 곡선성

곡선성의 기원은 고대의 “중용”이라는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즉 극단을 피하고 가장 바

람직한 결과를 이끄는 적절한 점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인 의미의 도덕성에는 중용이 적용될 수 없으나 시간, 노력, 에너지 분배 등 일상생활에서 중용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최연실 외 역, 1995). 지금까지 대부분의 가족학 연구에서는 중용 개념을 등한시하여 왔으며 많은 변인들을 선형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가족을 설명하는 몇몇 변인들(예-자아노출, 스트레스, 권력)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때 역기능적이 되므로 이들은 곡선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Olson, 1994).

Olson의 순환모델은 중용을 균형이라는 개념으로 다룬 모델이다. 즉 가족내의 응집성과 변화라는 두 가지 개념이 균형을 이룰 때 가족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FACES II와 FACES III로 순환모델의 곡선성을 검증한 연구들의 결과는 곡선성을 지지하는 편과 선형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곡선성을 지지하는 결과들은 주로 정상가족과 문제가족을 비교한 연구들로서, 정상가족이 문제가족에 비해 극단가족보다는 균형을 이룬 가족에 해당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에 선형성을 지지하는 연구는 곡선성을 주장하는 연구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 우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순환모델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도구인 FACES II와 FACES III가 과도한 극단 수준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방법론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Olson(1991) 역시 FACES II와 FACES III의 선형성을 인정하고 3차원 순환모델이라는 대안책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곡선성을 지지한 결과 역시 방법적인 면에서 많은 수정과 재고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Olson은 곡선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외부관찰자 척도(CRS)를 통해 순환모델의 곡선성을 밝혔다. 특히 임상가족과 정상가족을 균형을 이룬 유형과 극단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정상가족은 균형을 이룬 유형에, 임상가족은 극단 유형에 해당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다(Olson, 1994).

Tiesel은 1994년에 응집성과 적응성의 극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FACESIV를 개발하였고 뒤이어

김수연과 김득성(1997)은 FACES II, III, IV를 재구성하여 응집성과 적응성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응집성과 적응성의 각 차원은 적절한 수준을 매개로 양 극단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서 응집성과 적응성은 각기 단일차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척도를 이용하여 순환모델의 곡선성이 검증될 수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까지 지구는 평평하다고 주장된 것처럼 보다 발전된 자기보고식 척도가 개발될 때 순환모델의 곡선성은 밝혀질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조사 시행시 부산시에 거주하는 부부와 청소년 자녀로 표집틀은 부산시내 소재 중·고등학교이다. 가족원마다 가족을 보는 관점과 평가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이론적 근거에 따라 가족원 가운데 부부와 해당 자녀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일반가족을 표집하기 위해서 먼저 부산시 16개구 가운데 10개구를 선정하였고 그 다음 5개의 중학교와 5개의 고등학교를 표집하였으며, 이때 여학생과 남학생을 동일한 비율로 표집하였다. 1997년 4월 29일에서 5월 7일까지 선정된 각 학교에서 한 학급씩 총 10개 학급을 대상으로 500명의 학생과 학부모(총 1500명)를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학생을 통해 부부 질문지를 전달하였고, 부부와 자녀는 서로 의논하지 말고 각자의 질문지를 작성하여 동봉한 각각의 봉투에 넣어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389가족(1167명)이었다.

자녀의 경우 문자해독력이 없거나 문자해독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힘든 학동기 이하의 자녀는 연구 대상으로 삼기 곤란하여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문제가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집하였다. 먼

저 일반가족이 모두 기능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일반가족 중 문제가족을 몇가지 기준을 통해 찾기로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족이란 법적인 저축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지만 가족 기능을 저해하는 문제행동을 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족을 말한다. 표집된 일반 가족 중 문제행동 척도에서 한 문항이라도 응답을 한 경우 문제가족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 (특히 남편) 알콜 중독에만 응답을 한 경우 음주 문화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문제행동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알콜 중독과 다른 문제 행동이 결부되어 발생할 경우에만 문제가족이라고 보았다. 자녀의 경우에도 여성과의 혼숙 문항에만 응답을 한 경우에는 자녀의 숙박을 결한 행사시 혼숙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혼숙이 이성과의 성경험이나 가출과 병행해서 발생할 경우에만 문제행동으로 보았다. 대개의 문제행동의 경우 한가지 행동만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두가지 이상의 문제행동이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6가족 중 60가족(78%)이 2가지 이상의 문제행동을 보임).

둘째, 자녀의 역기능적 행동 가운데 청소년 비행은 문제행동으로 보고, 청소년 비행의 정의에 따라 소년원 재소자를 의도적 표집하였다. 재소자 1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여 그 가운데 가족이 현재 없거나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시키고 8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정상가족은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은 일반가족으로 정하였다. 원래 가족치료 영역에서는 가족이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제가족과 비교를 하려는 목적으로 정상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정상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정상가족 조사대상자의 가계 수입은 50만원 미만 이 2%,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 이 4%, 100~150만원 미만 이 21%, 150~200만원미만 이 24%, 200~250만원 미만 이 17%, 250만원~300만원 이 13%, 300~400만원 이 11%, 400만원 이상이 9%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이 2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생산 기술직과 소규모 자영업(20%), 일반 전문기술직(17%) 순이었다. 아내는 전업 주부가 66%이었고 취업을 한 경우 소규모 자영업(11%)과 서비스직과 생산기술직(5%), 고위 전문직(4%) 순이었다.

학력은 남편의 경우 초등학교 3%, 중학교 11%, 고졸이 47%, 대졸이 31%, 대학원졸이 3%이었다. 아내의 경우 초등학교 3%, 중학교 19%, 고졸이 55%, 대졸이 19%, 대학원졸이 3%이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간 계층이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균 연령은 남편이 45세, 아내가 41세, 자녀가 15세 이었다. 결혼 상태는 초혼의 경우가 97%이었다. 가족생활주기상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확대기 가족에 해당된다.

2) 문제행동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문제행동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가계 수입은 50만원 미만 이 1%,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 이 4%, 100~150만원 미만 이 27%, 150~200만원미만 이 21%, 200~250만원 미만 이 15%,

표 1) 연구대상자의 구성(총 1253명)

종 류	대 상	조사대상 가족	상대수
정상 가족	문제가 없는 일반가족	남편, 아내, 자녀	313가족 (939명)
문제 가족	문제행동을 지닌 일반가족	남편, 아내, 자녀	16가족 (228명)
	청소년비행 가족 (소년원 재소자)	자녀(재소자 본인)	86명

1) 부부의 문제 행동 : 알콜 중독, 도박, 폭노, 독염, 사별, 사별기도

자녀의 문제 행동 : 성경험, 이성과의 혼숙, 폭행, 약물복용, 가출, 자살시도

〈표 2〉 정상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 분	남편 사례수(백분율)	아내 사례수(백분율)	변인	구 분	사례수(백분율)	
연령	30~40세 미만	43(14)	147(49)	수입	50만원 미만	6(2)	
	40~50세 미만	235(78)	154(54)		50~100만원 미만	11(4)	
	50~60세 이상	25(8)	1(0.3)		100~150만원 미만	64(21)	
직업	무직, 주부	6(2)	201(66)		150~200만원 미만	71(24)	
	임시고용, 노무직	13(4)	9(3)		200~250만원 미만	51(17)	
	판매/서비스직	12(4)	16(5)		250~300만원 미만	40(13)	
	숙련,기능/생산직	62(20)	14(5)		300~400만원 미만	33(11)	
	소규모 자영업	61(20)	33(11)		400 이상	26(9)	
	일반 사무직	63(21)	9(3)		결혼 상태	아내 초혼 + 남편 초혼	298(97)
	일반 전문기술직	53(17)	10(3)			아내 초혼 + 남편 재혼	3(1)
	고위 전문직	35(11)	11(4)	아내 재혼 + 남편 초혼		1(0.3)	
기타	2(0.3)	1(0.3)	아내 재혼 + 남편 재혼	4(1)			
교육 수준	초등졸 이하	10(3)	10(3)				
	중졸	32(11)	57(19)				
	고졸	142(47)	162(55)				
	대졸	95(31)	56(19)				
	대학원졸	10(3)	10(3)				

〈표 3〉 문제행동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 분	남편 사례수(백분율)	아내 사례수(백분율)	변인	구 분	사례수(백분율)	
연령	30~40세 미만	5(7)	33(47)	수입	50만원 미만	1(1)	
	40~50세 미만	63(85)	36(52)		50~100만원 미만	3(4)	
	50~60세 이상	6(8)	1(1)		100~150만원 미만	20(27)	
직업	무직, 주부		41(58)		150~200만원 미만	15(21)	
	임시고용, 노무직	1(1)	1(1)		200~250만원 미만	11(15)	
	판매/서비스직	7(10)	10(14)		250~300만원 미만	8(11)	
	숙련, 기능/생산직	15(21)	1(1)		300~400만원 미만	8(11)	
	소규모 자영업	18(25)	11(16)		400 이상	7(10)	
	일반 사무직	11(15)	1(1)		교육 수준	초등졸 이하	6(8) 4(6)
	일반 전문기술직	11(15)	5(7)			중졸	11(15) 16(23)
	고위 전문직	9(12)	1(1)	고졸		31(42) 35(50)	
기타	1(3)		대졸	23(31) 15(21)			
			대학원졸	3(4)			

250만원~300만원이 11%, 300~400만원의 11%, 400만원 이상이 10%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소규모 자영업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산기술직 21%, 그리고 사무직과 일반 전문기술직 15%순이었다. 어머니는 전업 주부가 58%이었고 취업을 한 경우 소규모 자영업(16%)과 서비스직(14%), 일반 전문기술직(7%) 순이었다. 학력은 남편의 경우 초등학교 8%, 중졸이 15%, 고졸이 42%, 대졸이 31%, 대학원졸이 4%이었다. 아내의 경우 초등학교 6%, 중졸이 23%, 고졸이 50%, 대졸이 21%이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상가족에 비해 수업, 직업 및 교육 수준에서 지위가 약간 낮다고 볼 수 있다. 평균 연령은 남편이 45세, 아내가 41세, 자녀가 15세이었다.

3) 청소년비행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청소년비행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소년원 재소자의 평균 연령은 17세이었고 정상가족의 자녀 연령보다 높았다. 학력은 중학교 중퇴나 중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고등학교 중퇴였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친어머니와 친아버지의 경우가 절반수준으로 정상가족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편부모 가족이 29%, 계부모 가족이 12%이었다. 재소자의 비행 내용은 폭력이 약 8%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해화학(본드, 부탄가스)과 같은 물질 흡입)과 절도가 각각 10%를 차지하였다.

3. 측정도구

질문지는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질문과 재구성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 Barnes와 Olson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부부 의사소통 척도, 가족화목 척도, 부모와 자녀의 문제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1)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척도는 김수연·김득성(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집성 척도는 유리 5문항, 연결 11문항, 매물 8문항으로, 적응성 척도는 경직 8문항, 융통 7문항, 혼돈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우리가 $\alpha = .81$, 연결이 $\alpha = .78$, 매물은 $\alpha = .68$ 이었고, 적응성에서 경직은 $\alpha = .68$, 융통은 $\alpha = .82$, 혼돈은 $\alpha = .76$ 이었다. 문항의 응답 방식은 5점 리커트식이다.

2) 의사소통 척도

부부 의사소통 척도는 김수연(1993)의 부부 의사

<표 4> 청소년비행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사례수(백분율)	변인	구분	사례수(백분율)
범죄 내용	유해화학	8 (10)	교육 수준	무학	4 (5)
	절도미수	2 (2)		초등졸	4 (5)
	절도	8 (10)		중학교 중퇴	38 (46)
	특수절도	7 (9)		중졸	10 (12)
	금품갈취	1 (1)		고등학교 중퇴	25 (29)
	폭력	25 (29)		고졸	2 (2)
	강도상해	2 (2)		부모의 결혼 상태	친어머니+친아버지
	특수강도	5 (6)	친어머니+계부		6 (7)
	강간치상	2 (2)	계모+친아버지		9 (11)
	특수강간	3 (3)	계모+계부		1 (1)
	주거침입	2 (2)	편모		11 (14)
	무응답	25 (29)	편부		12 (15)

소통 척도 가운데 적극적이고 명료한 의사소통, 수용적인 배우자의 태도, 강압적·지배적 의사소통, 불안·회피적인 의사소통의 네개 요인을 골라 20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5점 리커트식으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남편과 아내 각각 $\alpha = .88$ 이었다.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와 Olson(1985)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를 정유미(1997)와 정현숙·서동인(1996)이 변안한 것을 참고로 하여 사용하였다. 부부는 부모용 의사소통 척도로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는 자녀용 의사소통 척도 40문항(부부용과 내용은 같으나 부모 각각에게 질문)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남편의 경우가 $\alpha = .83$, 아내의 경우가 $\alpha = .84$, 자녀의 경우 $\alpha = .85$ 이었다. 의사소통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나타낸다.

3) 가족화목 척도

이 척도는 Kinnaird와 Gerrard(1986)의 가족분위기 척도(Family Atmosphere Questionnaire)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자녀의 경우 父와 母의 관계, 자녀와 父 母와의 관계, 가족의 일체감, 가족내의 의견충돌이나 갈등, 가족의 화목 정도의 5문항이다. 부모의 경우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의 일체감, 가족내의 의견충돌이나 갈등, 가족의 화목에 대한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화목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남편의 경우 $\alpha = .82$ 이고, 아내의 경우 $\alpha = .80$ 이며, 자녀는 $\alpha = .84$ 이었다.

4) 문제행동 척도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부부용과 자녀용으로 나뉘며 각각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부의 문제 행동 문항은 유순덕(1987)과 권윤아(1997)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알콜 중독, 폭행, 외도, 도박, 자살 시도 및 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범주는 항상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4점 척도이다.

자녀의 문제행동 척도는 유순덕(1987), 정유미

(1997)와 권윤아(1997)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녀의 문제행동 척도는 이성과의 성 경험, 이성과 혼숙, 약물남용, 폭행, 가출 및 자살 시도로 구성되었으며 응답범주는 4점 척도이다. 문제행동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행동의 빈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IV. 결과 및 해석

1.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의 전반적인 경향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남편, 아내 및 자녀의 응집성과 적응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를 구하였다.

응집성과 적응성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수준의 특성이 강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응집성 중 유리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유리된" 가족을 나타낸다.

응집성의 하위수준을 지각하는 정도는 가족이 모두 유사하였다. 먼저 응집성 중 우리는 15점(문항 평균 3점 : 응답 범주에서 '보통이다'에 해당)미만인 경우 유리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남편, 아내 및 자녀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가족이 유리되어 있지 않다고 지각하였다. 연결은 33점(문항 평균 3점) 이상이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남편, 아내 및 자녀는 모두 자신의 가족이 연결된 것으로 보았다. 속박은 24점(문항평균 3점)미만인 경우 속박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족 모두 속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적응성의 하위수준을 지각하는 정도도 가족이 유사하였다. 경직은 24점(문항 평균 3점)미만인 경우 경직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는데, 남편, 아내 및 자녀는 모두 경직 수준이 낮다고 지각하였다. 융통은 21점(문항 평균 3점)이상이 융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편, 아내 및 자녀는 모두 자신의 가족이 융통적이라고 지각하였다. 혼돈의 경우 21점(문항평균 3점) 미만인 경우 혼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남편, 아내 및 자녀 모두 자신의 가족을 혼돈되지 않은 편이라고 지각하였다.

〈표 5〉 일반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

N=389 가족

	응 집 성					
	유리(5문항)		연결(11문항)		속박(8문항)	
남편	10.3	(3.5) 5-25	40.1	(6.9) 11-55	20.2	(5.3) 8-40
아내	9.8	(3.5) "	41.5	(6.9) "	20.6	(5.4) "
자녀	10.4	(3.3) "	38.6	(6.8) "	18.6	(4.3) "
	적 응 성					
	경직(8문항)		융통(7문항)		혼돈(7문항)	
남편	19.4	(5.4) 8-40	25.1	(5.1) 7-35	15.1	(4.9) 7-35
아내	19.1	(5.3) "	26.5	(5.0) "	14.9	(5.0) "
자녀	17.6	(4.7) "	25.0	(5.0) "	15.6	(4.3) "

이상에서 각 가족구성원은 자신의 가족이 대체로 기능적이라고 유사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표 6〉 응집성과 적응성의 유형 구분

2. 응집성과 적응성의 유형

순환모델의 곡선성을 검증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기준을 설정하여 유형을 구분하는 일이다. 유형 구분에서 유의할 점은 각 하위수준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유형 구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²⁾ 연구자가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양 극단 수준은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삼아 그 이상에 해당하는 사례를 극단 유형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점수는 다음과 같다.

응집성 : 유리 - 13점, 속박 - 25점

적응성 : 경직 - 24점, 혼돈 - 20점

적절한 수준은 극단 수준에 해당되지 않은 나머지 사례를 적절한 유형이라고 하였다. 응집성과 적응성의 유형을 구분한 뒤 해당되는 가족의 사례수는 〈표 6〉과 같다.

다음으로 세 유형으로 나눈 응집성과 적응성의 각 수준을 교차하여 순환모델에 따른 가족체계 유형을

	유형	기준점	빈도 (백분율)
응집성	유리	평균+표준편차 13점 이상	22 (6)
	연결	유리와 속박에 해당되지 않은 나머지 사례	295 (78)
	속박	평균+표준편차 25점 이상	69 (18)
적응성	경직	평균+표준편차 24점 이상	45 (12)
	융통	경직과 혼돈에 해당되지 않은 나머지 사례	312 (82)
	혼돈	평균+표준편차 20점 이상	23 (6)

구분하였다.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9개 순환모델의 구성성분 분포는 〈표 7〉과 같다. 균형을 이룬 가족에 해당한다고 지각하는 가족이 259가족(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간범위 가족으로 84가족(23%), 극단 가족은 36가족(9%)으로 가장 적었다.

2) FACESⅢ에서는 응집성과 적응성의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4가지 하위수준을 구분하였다. 이 방법은 4가지 하위수준을 하나의 척도로 모두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은 전제로 한 것이다.

〈표 7〉 순환모델에 따른 각 구성성분의 사례수

	유리	연결	속박	
경직		23 (6)		빈도 (%)
융통	10 (3)	259 (68)	42 (11)	
혼돈		9 (2)		

■ 균형을 이룬 가족 259가족(68%)
 □ 중간 범위 가족 84가족(23%)
 ▨ 극단 가족 36가족 (9%)

3. 응집성 및 적응성 유형에 따른 가족기능

응집성 및 적응성의 수준에 따라 가족기능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 1]에서 도출된 2개의 가설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답을 구하기 위하여 응집성과 적응성 유형에 따른 가족기능을 일원변량 분석하고 추후검증을 하였다.

부부는 자녀에 비해 자신들의 가족을 보다 유사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부의 지각은 .47~.63의 상관을 보인 반면 부모와 자녀간에는 .32~.44의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자료를 합쳐 부부의 점수로 분석하였다.

[가설 1-1] 이 지지되기 위해서는(응집성이 곡선적이라면) 연결 유형의 가족기능은 높아야 하고 유리/매물 유형의 가족기능은 낮아야 한다.

응집성 중 연결 유형에서 가족화목과 의사소통 점수가 모두 높았으며, 속박과 유리 유형은 가족화목과 의사소통 점수가 낮았다. 추후검증 결과 연결 유

형은 유리, 속박 유형과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연결 유형일 경우 가족화목과 의사소통 점수가 높아 가족기능이 가장 원활한 반면 유리와 속박 유형일 경우 가족화목과 의사소통 점수가 낮아 가족기능이 역기능적이었다.

그러므로 연결 유형일 경우 가족기능이 가장 원활하였으며, 유리/매물 유형일 경우 가장 역기능적이었다. 따라서 [가설1-1]은 지지되었다.

[가설 1-2]가 지지되기 위해서는(적응성이 곡선적이라면) 융통 유형의 가족기능은 높아야 하고 경직과 혼돈 유형의 가족기능은 낮아야 한다.

적응성의 경우 융통 유형의 가족화목과 의사소통 평균이 가장 높았고, 경직과 혼돈 유형의 평균이 낮았으며, 평균차이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추후검증 결과 융통 유형은 경직, 혼돈 유형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융통 유형일 때 가족화목이 높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반면 경직과 혼돈 유형일 경우 가족화목과 의사소통은 역기능적이었다.

그러므로 융통 유형일 경우 가족기능이 원활하였으며 경직이나 혼돈 유형일 경우 역기능적이었다. 따라서 [가설1-2]는 지지되었다.

이상에서 응집성과 적응성을 분리하여 각 수준에 따른 가족기능을 알아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소하지도 과다하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연결, 융통)에 속할 때 기능적이고, 극단적으로 과소하거나(유리/경직) 과다한 수준(매물/혼돈)에 속할 때 가족기능이 역기능적이어서 [연구문제 1]의 두 가설은 지지되었다.

4.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가족기능

순환모델의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가족기능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2]가 지지되면 균형을 이룬 가족은 중간범위 가족이나 극단의 가족보다 가족기능이 원활해야 한다.

가족화목과 의사소통에서 모두 균형을 이룬 가족은 가족기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간범위 가족이었으며, 극단 가족이 가장 낮은 가족기능을 나타내었다. 추후검증 결과 각 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

〈표 8〉 응집성 유형에 따른 가족기능

(사례수/평균/Scheffé)

가족기능 유형	가족화목	의 사 소 통			
		부부 지각		자녀 지각	
		부부	자녀	아버지	어머니
유 리	20 15.8 a	20 62.6 a	21 61.2 a	48 52.5 a	48 56.1 a
연 결	287 21.2 b	287 77.7 b	288 79.4 b	267 68.8 b	267 69.3 b
속 박	65 18.6 ac	65 69.3 c	67 67.8 c	68 58.0 a	67 59.1 ac
F 값	21.3*	12.6*	11.5*	16.6*	12.8*

*P< .0001

〈표 9〉 적응성 유형에 따른 가족기능

(사례수/평균/Scheffé)

가족기능 유형	가족화목	의 사 소 통			
		부부 지각		자녀 지각	
		부부	자녀	아버지	어머니
경 직	42 18.2 a	48 65.8 a	47 66.1 a	43 59.8 a	44 59.3 a
용 통	303 20.8 b	308 72.6 b	307 70.8 b	292 62.4 b	292 69.8 b
혼 돈	22 15.1 c	15 60.0 c	16 62.5 ac	47 53.9 a	47 55.7 a
F 값	33.4*	14.3*	12.4*	12.0*	15.0*

*P< .0001

〈표 10〉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가족기능

(사례수/평균/Scheffé)

가족체계 유형	가족화목	의 사 소 통			
		부부 지각		자녀 지각	
		부부	자녀	아버지	어머니
극단 가족	35 11.9 a	34 55.1 a	35 59.8 a	33 51.8 a	35 53.5 a
중간범위 가족	83 18.2 b	82 61.1 b	83 63.2 b	82 53.6 b	84 57.7 b
균형을 이룬 가족	257 21.2 c	258 73.8 c	258 71.3 c	257 62.4 c	258 65.3 c
F 값	36.6*	32.6*	24.5*	14.2*	38.4*

* P< .0001

였다. 즉 균형을 이룬 가족이 가장 기능적이고, 극단 가족이 가장 역기능적이었다.

따라서 응집성, 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에 관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순환모델의 곡선성은 재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에 의해 입증되었다.

5. 정상가족과 문제가족의 가족체계 유형 비교

다음은 가족체계 유형의 분포를 통해 정상가족과 문제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앞의 결과와 일관되게 순환모델이 곡선적이라면 정상가족은 문제가족에 비해 균형을 이룬 가족에 속할 비율이 높고 극

단 가족에 속할 비율이 낮을 것이다. 이를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정상가족은 극단 가족에 속하는 비율이 7%인데 비해, 문제행동 가족은 20%, 청소년비행 가족은 3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정상가족은 균형을 이룬 가족에 속하는 비율이 73%인데 비해, 문제행동 가족은 50%, 청소년비행 가족은 28%이었다. 즉 정상가족은 문제가족에 비해 균형을 이룬 가족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극단 가족에 속하는 비율이 낮았다. 이러한 세 집단간에는 χ^2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표 11〉 정상가족과 문제가족의 가족체계 유형 분포 사례수(백분율)

종 류	극단 가족	중간범위 가족	균형을 이룬 가족
· 정상가족	20 (7)	62 (20)	222 (73)
· 문제행동 가족	15(20)	22 (30)	37 (50)
· 청소년비행 가족	32(38)	29 (34)	24 (28)

$\chi^2=80.5 P<.0001$

위의 결과는 양 극단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의 부재로 인해 선행 연구와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외부관찰자 척도(CRS)에 의한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60가족의 정상가족, 25가족의 청소년 문제가족, 35가족의 정서/행동 장애 가족을 비교한 Thomas와 Olson(1993)은 응집성과 적응성에서 정상가족이 문제가족에 비해 적절한 수준에 속한 비율이 더 높았고, 극단 수준에 속하는 비율이 더 낮았다고 하였다. 또한 정상가족은 문제가족보다 균형을 이룬 가족에 속하는 비율(80%)이 더 높았고, 극단 가족에 속하는 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CRS를 이용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재구성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를 이용하여 순환모델의 곡선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가족의 전반적인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은 가족 모두 건강한 수준이었다.

둘째, 정상가족의 경우 응집성과 적응성의 각 수준이 적절할수록 가족기능이 높았으며, 양 극단수준일수록 가족기능이 낮았다. 따라서 [연구문제 1]의 가설들은 지지되었다.

셋째, 정상가족의 경우 가족체계 유형은 균형을 이룬 가족일 때 기능적이었고, 극단가족일 때 역기능적이었다. 따라서 [연구문제 2]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넷째, 정상가족은 문제가족에 비해 균형을 이룬 가족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고 극단 가족에 속하는 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연구문제 3]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근거로 순환모델의 곡선성은 입증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즉 재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응집성과 적응성이 과소하지도 과다하지도 않은 균형을 이룬 가족이 극단 가족보다 기능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한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타당성이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관찰 척도가 아닌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순환모델의 곡선성을 입증하였다는 것은 방법적인 면과 이론적인 면에서 매우 의의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FACES II와 FACES III는 하나의 공식을 사용하여 유형을 구분하였으나, 상대적인 구분이어서 연구 결과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구성된 척도는 절대적인 구분을 적용하긴 하였지만 가족유형 분류를 처음 시도하였으므로 기준점에 대해서는 축척된 연구를 통해 유형 구분 방법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문제가족은 문제의 유형에 따라 가족의 역동성이 다를 것이라는 것이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가족, 가정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가족, 자녀가 비행을 일으키는 가족 등은 문제에 따라 가족의 기능이 안고 있는 문제도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역기능을 보이는 가족이라고 해서 문제가족을 일률적으로 다루어서는 곤란하며, 추후 연

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문제가족 유형에 따라 가족의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윤아. 실업계 여고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및 가출 유형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력, 적응력 및 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3, 31-56.
- 김수연, 부부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의사소통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_____ (1994). 맞벌이 부부의 응집 및 적응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3), 121-134.
- 김수연, 김득성(1997).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Ⅱ. *대한가정학회지* 35(6), 205-219.
- 김진희(1988). 부모-청소년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2(1), 112-124.
- 안양희(1988).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 서컴프렉스 모형을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순덕.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정유미(1997).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 실업계 여고생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현숙 · 서동인(1996). 편부모 가정의 자녀가 원자환 가족 환경 및 사회, 심리적 적응성. 서울특별시, 한국가족학회, 늘어나는 편부모, 96가정복지 세미나
-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연실(1996). 가족 적응력 · 응집성 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31-145.
- 최연실 외 역(1995). 새로보는 가족관계학. 서울 : 하우.
- Barnes, H. L., & Olson, D.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7-447.
- Green, R.G., Kolvezon, M.S. & Vostler, N.R.(1985). The Beavers-Tiberlawn Model of family competence and Circumplex Model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eparate but equal? *Family process* 24, 85-398.
- Kinnard, K.L., & Gerrard, M.(1986). Premarital Sexual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divorce among young women as a function of their mothers' marital statu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 757-765.
- Olson, D.H.(1991). Commentary: Three-Dimensional (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 III. *Family Process* 30, 74-79.
- Olson, D.H.(1994). Commentary: Curvilinearity survives : The world is not flat. *Family Process* 33, 471-478.
- Olson, D.H., Sprenkle, D.H. & Russell, C.S.(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Tiesel, J.W.(1994). Capturing family dynamics :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FACESIV.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 Walker, L.S., McLaughlin, F.J. & Greene, J.W.(1988). Function illness and family function: a comparison of healthy and somaticizing adolescents. *Family Process* 27, 317-325.